

인터뷰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한글로 쉽게 옮긴 현대인의 대장경”



“부처님은 재세 시에 45년간 중생들을 위해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문자를 빌어 나뉘었고 나무판과 돌과 종이로 새겨지고 써서져 경전을 이루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인도 지역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나라마다 문자가 다르고 문화 풍토가 다르니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과 방법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은 다 생각하려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글과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한글 대장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장경이 국보이고 세계의 문화유산이듯이 우리 글로 다듬어진 한글대장경을 통해 보다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 나아가 온 국민이 경전을 읽고 우리의 문화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훌륭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주문에도 힘을 주었다.

“역경원장으로서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했을 때 스님은 좀 어색한 웃음과 함께 “인제난과 재장난을 매일 매일 절감한다”고 답했다. 재장난은 정부의 중단 등 여러 기관과 뜻 있는 인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지만 인제난은 시간과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재정적 투자까지 필요하므로 해결이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월운스님은 현재 2500여명으로 결성된 역경후원회와 봉선사와 실상사 등에 개설된 농업학림, 화엄학림의 학생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진각해심 스님의 <선문염송>이 한글로 번역된 이후 10여명이 연구에 매진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역경불사는 불교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지요. 포교현장에서 학자들의 연구실에 이르기까지 한글대장경이 엄청난 효용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일이 선불리 손발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역경불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월운스님은 “나는 그저 야구의 희생타처럼 한 단계의 일을 마치고 물러날 뿐이고 뒤의 선지식들이 더 길고 뛰어서 진정으로 빛나는 우리시대의 국보를 창출해 주길 바랄 뿐”이라며 역경불사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월운스님은 역경불사는 끝이 없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는 이미 출간된 번역서들의 맞춤법 어휘 등에 대한 교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손쉽게 구입해 읽을 수 있는 단행본 한글대장경 해제본 등을 보급하는 일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팔만대장경 한글 환생은 미래로 이어질 또 하나의 국보”

동국역경원의 제4대 역경원장 소임을 7년째 맡고 있는 월운스님. 스님은 한글대장경 불사는 우리시대 불교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불사이자 국책사업일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해인사에 소장된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로부터 비롯되어 영감을 누릴 나라의 보배이고 우리시대에 한글로 환생한 대장경은 우리시대로부터 무한한 미래로 이어질 또 하나의 국보라는 것이 월운스님의 지론. 그런 소신으로 스님은 93년 원장직을 맡은 이후 역경불사의 절반 이상을 지휘해 왔다. 스승인 운허스님(초대 원장 역임)의 지중한 원력을 이어 역경불사의 현장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어느 지역, 어떤 법회에 가서도 역경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연이 닿는 대로 역경 후원금을 회수 하는 것이 월운스님에게는 자연스런 일상이 되었다. 물론 스님도 한역경전의 번역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월운스님은 한글대장경의 간행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나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이해하고 삶의 체험으로 승화시킨 술한 선지식들의 마음자리로 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는 답을 던졌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고유의 글과 말이 있음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문판본으로 되어 있는 팔만대

임연태 편집위원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신년 좌담

일면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은정희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최철환 부장 동국역경원

사회: 임연태 본지 편집위원

‘불교 어렵다’ 통념 깬 한글대장경 두루 읽자

조계종 3대 역경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한글대장경 번역 간행 불사가 동국역경원에 의해 36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동국역경원은 1964년 개원을 기점으로 대장경 한글화 작업을 시작하여 2000년 연말까지 총 320권의 한글대장경을 완성했다. 이는 한국불교 현대사의 중요한 업적이자 소득일 뿐 아니라 한문문화권에서 한글세대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 문화사와 불교사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쾌거다. “불교는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신행의 현장에서 보다 쉽고 명료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한글대장경으로부터 열렸기 때문이다.

36년 불사 320권 완간

사회자: 바쁘신 가운데 좌담에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불사가 일단락된 것은 불교집안 뿐 아니라 국가적인 경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대의 언어로 환생한 대장경이 아무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도 불자들이 읽고 배우지 않으면 그 가치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잘 정제된 대장경 즉, 우리의 언어로 우리 일상에 바짝 다가온 부처님 가르침도 읽고 배우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맛을 알 수 없을 것이니까요. 우선, 일면스님께서 한글대장경 불사의 의의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면스님: 역경불사를 위해 36년이란 세월을 꾸준히 걸어 온 관련자들의 원력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원력이 이제 불자와 국민 앞에 커다란 성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대장경 한글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읽어 그 참뜻을 바로 새기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글대장경의 완간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려



동국역경원이 36년간의 한글대장경 번역불사를 마침으로 불교의 신행과 문화적 발전이 증폭될 것이라 진단하는 좌담참석자들. 좌로부터 최철환 부장, 일면 스님, 은정희 교수.

시대에 처음 조판된 대장경은 소신이 되었고 두 번째 조판된 대장경이 지금 해인사에 남아 있는 이른바 팔만대장경인데 그간 우리는 이 팔만대장경을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장경이란 심장 즉, 경綱(綱) 繩(繩) 律(律) 繩(繩) 을 다 망라했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 지고한 가르침을 떠나서 불교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한글대장경은 우리시대의 불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은정희: 고려시대의 대장경 조판은 무신정권의 힘을 드러내는 유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배경도 있지만 그보다는 외적의 침입이라는 현실문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원력을 모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극복하고자 했던 동기가 어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팔만대장경은 그 조판의 역사로부터 많은 수행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장경에 대한 공부야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대장경이 있음으로 인해 불교의 발전도 가능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최철환: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교의 수행가풍을 선(禪)과 교(敎)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선은 교를 떠나 있고 교는 선과 별개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에 대한 이해의 폭도 그리 넓게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과거의 조사들도 대부분 교화에 밝았던 분들이고 교학을 일반적으로 비하하거나 무용지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비근한 예로 성철스님도 수많은 장서를 통독하셨고 더 위로는 경허, 한암 스님 등 근세 선의 종장들이 다 교학적 바탕으로 선을 수행하여 일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일면스님: 신라말에 구산선문이 속속 개창됨으로 우리나라는 선불교를 꽃피우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원효나 의상 스님들

이 대표되는 교학적 불교가 성했습니다. 우리 조계종도 선교를 원용하는 종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해탈이고 해탈을 위해서는 선만이 옳은 길이라 할 수도 없고 교만이 바른 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과 교, 염불, 심지어 사만의 행정도 하나의 수행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란 점입니다. 다만 옛 조사들은 선을 통해 해탈의 길로 빠르게 이를 수 있다고 믿어 선수행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큰스님들께 책을 버리고 선을 해야 성불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책을 버리는 것은 문자와 알음알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계인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오해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대장경은 불교수행의 지식적 체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문자는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지기화, 육화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피에 힘입어

사회자: 현대는 사회의 인적 배경이 매우 향상된 지식인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글대장경은 바로 우리 글로 다가온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에 대한 승가의 이해가 고요되어야 사회지식층들이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부장님께서 역경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장 절실히 느끼시지요.

최철환: 기존의 수행가풍과 관련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역경사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년 인제의 부족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경을 수행으로 여길 스님들과 재가 학자들이 많이 배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경의 양성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료하신 큰스님들은 교학적인 면에서나 수선의 측면에서나 일가견을 이루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스님들의 자리를 이어갈 후학들이 꾸준히 배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경은 시대를 따라 한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불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정희: 인제난이 대두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스님들만 역경불사에 종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역경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의 작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계문제에 직면해서 그 뜻을 접고 말거든요. 종단언어 어떤 기관이든 스님이나 재가자를 구별 할 것 없이 좋은 인재들이 생겨 걱정 없이 마음놓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천안天佛寺. 사회복지법인 미타세계 만불동산 천안 108법수회. 회주 이기연, 주지 석부불, 신도회장 민병달.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번지 흑석산. 전화: (041) 557-3223, 557-3506. 팩스: (041) 555-6550.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서성운, 상임이사 김도광. 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제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소, 인덕치매중증단기보호소, 노인전문불교요양원, 호암마을, 노숙자 희망의집, 청소년 상담 공부방, 인덕어린이집, 원정 하영숙, 수색어린이집 원정 나영희, 개나리어린이집 원정 최숙희, 불광어린이집 원정 장한주.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번지. 전화: (02) 385-8205~6, 팩스: (02) 385-8207. 은평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서성운, 부회장 한자용, 김혜진, 이병성, 김혜장.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27-1. 전화: (02) 353-3004, 359-7766.

대한불교 북한산 중흥사. 주지 명도각, 신도일동. 중흥사 문화재 건축허가 취득, 태고보우국사가 중국 석목청궁대화상에게 정법 전수한 부처님 조계선법 전범처, 5교9산 통합하여 조계종 창종 중흥 종조도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59. 전화: (02) 355-4488 / 357-7744(팩스겸용).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개금사회복지관, 보현어린이집, 양정노인 복지관, 선혜마을(실직자 쉼터). 선원장 정여, 관장 정여, 국장 박용하, 소장 김영.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전화: (051) 853-5486~7.